

대학생의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의 매개효과*

임 혜 민¹⁾

한남대학교 상담학과

최 지 영²⁾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 충남의 4년제 대학교 6곳에 재학 중인 총 330명의 대학생이다. 이들에게 열등감 증후 척도, 관계적 공격성 척도, 의도귀인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등감, 관계적 공격성, 의도귀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열등감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의도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열등감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행위를 의도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하고, 이것이 다시 관계적 공격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 상담 과정에서 열등감과 의도귀인과 같은 인지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개입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대학생, 열등감, 관계적 공격성, 의도귀인

* 본 논문은 임혜민의 석사학위논문(2019)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19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함.

1)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 choi0122@hnu.kr)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시기를 마무리하고 성인기에 진입하는 단계로 여러 발달과업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자아 실현과 타인에 대한 인정욕구를 가진 대학생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하고(장은영, 한덕웅, 2004),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권경인, 조수연, 2013). 특히 현대 사회에서 고학력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 증가되어 예전에 비해 스트레스, 불안,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질투심, 분노, 적대감, 열등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장은영, 한덕웅,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열등감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면 Adler(1964)는 열등감을 외모적,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인 능력 등을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방보다 본인이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열등감과 공격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동안 열등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열등감은 좌절감과 불안뿐만 아니라 분노를 유발하고 이것이 공격행동과 연관된다(김진영, 2010). 또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열등감이 폭력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Moore, Stuart, McNulty, Addis, Cordova & Temple, 2010).

열등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놓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분

노를 느끼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분노감과 적대감으로 인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김진영, 2010; 홍혜미, 2016). 또한 열등감이 높을수록 열등감을 유발하는 상황을 적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과도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신체, 언어적 공격성과 함께 적대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윤은지, 권해수, 2014). 한편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를 숨기고자 과도한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정남운, 2001).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 중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대인관계에 취약하여 열등감이 높다(홍혜미, 2016). 이는 외현적 또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이 열등감을 경험하면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더 쉽게 표출하게 된다는 것과 관련된다(윤보미, 2017). 이렇듯 열등감을 경험하는 상황을 적응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의 경우 심리적인 불안이 줄어들지만 부적응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과도한 공격성으로 나타난다(Adler, 1964). 또한 대학생이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요인 중 열등감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구자영, 2018)의 결과를 통해서도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열등감의 성차에 대하여 연구한 김현준(2004)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열등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방은경(2015)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으로 인한

역차별이 문제시되는 현 상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열등감을 더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의 주요 변인인 열등감의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공격성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왔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도구적 공격성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목적인 적대적 공격성으로 구분하거나(Dodge & Coie, 1987; Hubbard, 2001; Schultz & Schultz, 1998), 공격유형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공격성과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는 언어적 공격성, 대상에 따라서 공격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직접적 공격성과 공격대상자가 아닌 다른 대상이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간접적 공격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Frodi, Macaulay & Thome, 1977).

또한 공격성을 표현 양상에 따라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위협하며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인 외현적 공격성과 소문이나 거짓말 등의 사회적 조작을 통하여 타인의 지위나 자아존중감에 해를 주는 행동인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Crick & Grotpeter, 1995). 이 중 관계적 공격성은 집단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은밀한 괴롭힘은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으므로 공격을 당하는 당사자 외의 제 3자가 정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김정균, 장석진, 2014).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다른 공

격성의 유형과는 다르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관계를 이용한 공격성의 유형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래관계에서 배제하는 등의 암묵적이면서 직접적인 공격성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간접적 공격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최지영, 배라영, 2014).

특히 대학생의 경우 현실에 대한 지각의 폭이 넓어지면서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더욱 민감해져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성이 줄어들고,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를 이용한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노우빈, 2015; 박민정, 최보가, 2004; 배라영, 2017).

Crick과 Grotpeter(1995)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하여 독특한 공격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남녀 간의 성차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비단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성차의 구분없이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Merrell, Buchanan, & Tran, 2006).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유아 및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의 전 연령대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인설, 정계숙, 2008).

한편 공격적인 학생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회적인 단서를 편파적으로 인지하고 귀인 함으로써 모호한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고, 자신이 상처받은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되게 이해하기 때문에 공격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임승렬, 1996). 이 때 모호한 상황에 대한 판단, 즉 의도귀인

이 중요하다. 의도귀인이란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안에 포함된 의도를 추론하는 것으로, 모호한 상황속에서 상대방의 행위를 추론할 때 우연하게 일어난 것인지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인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Crick & Dodge, 1994).

의도귀인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정관계에서 질투로 인해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인 것으로 귀인하고, 문제의 원인이 제 3자에게 있다고 판단할 때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났다(심은신, 2011). 또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의도귀인 경향이 증가할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부정적이며 불쾌한 자극 속의 사회적 상황을 해석할 때, 타인의 의도가 있다고 인지하면 할수록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강영호, 2016). 이러한 사실은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이라고 해석할 경우 자신의 노출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오선미, 2015).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도귀인 및 정서귀인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정서적 요인인 두려움 조건에서 유아가 상대 유아의 행동을 의도성을 가진 행동으로 인식하고, 높은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심, 2014). 또한 개인이 속한 집단의 분위기도 의도귀인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또래 집단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허용할수록 적대적 의도를 가진 개인이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데, 이는 곧 개인의 행동이 집단행동에 의해 강화되기도 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조서경, 2014).

의도귀인 연구의 초기에는 돌발적 상황과 신체적 공격성과의 관계가 주로 연구되었으며, 관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Crick & Dodge, 1994). 그러나 이후에 애매한 상황에서 습득한 정보를 적대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은 상대방의 의도가 분명할 때는 사회적 단서를 왜곡하지 않았지만, 의도가 분명하지 않고 애매했을 때에는 단서를 왜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rick, 1995; Crick, Grotpeter & Bigbee, 2002). 즉, 적대적인 의도로 귀인을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Crick & Dodge, 1994).

한편 열등감과 의도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 열등감과 자존감 및 귀인양식의 특징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귀인함으로써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홍초롱, 2013). 타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두려워하며, 사회적으로 불안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해석에 귀인하는 특징을 보인다(Kashdan & Weeks, 2010). 또한 귀인소재에 따른 열등감은 이후의 성취과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학업 성취의 실패경험을 내부로 귀인하게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대인관계나 학업측면에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진로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성희, 2011). 종합해보면,

열등감을 가진 대학생이 타인의 평가와 비판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행위를 해석할 때, 의도적이며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왜곡하여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하고,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연구된 변인들에서 성차에 대한 보고가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각 변인들 간의 성차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학생의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열등감, 관계적 공격성, 의도귀인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열등감, 관계적 공격성, 의도귀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의도귀인은 대학생의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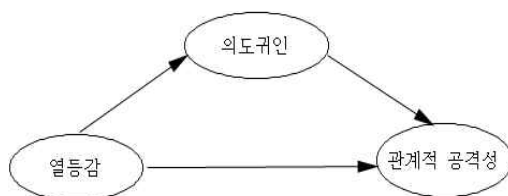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전, 충남에 있는 6개의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실시 전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연구심의신청을 실시하여 승인을 받았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대전의 한 대학에서 대학생 10명을 무선표집하여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진행시 사전에 협의된 각 대학의 책임자를 통하여 연구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율적 참여 독려 및 보상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진행을 하면서 설문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받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시간은 약 5~10분 정도로 소요되었고,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408명이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3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330명 중 남자는 120명(36.8%), 여자는 210명(63.6%)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149명(45.2%), 2학년 90명(27.3%), 3학년 52명(15.8%), 4학년 39명(11.8%)이었다. 지역별 학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대전 230명(69.7%), 충남 100명(30.3%)이었다.

2. 측정도구

열등감 증후 척도

열등감 증후 척도는 임기홍(2000)이 개발한 척도를 정수희(200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수정한 열등감 증후 척도를 사용하였다. 열등감 증후를 측정하는 문항은 민감성(10문항), 소극성(10문항), 후퇴성(10문항), 불성실 응답을 가리기 위한 2문항의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감성은 열등감에 빠지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의 흉을 볼까봐 걱정이다.’, ‘누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기분이 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극성은 열등감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는데,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은 내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 누군가에게 중매를 부탁하기에는 내가 부족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퇴성은 열등감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문항의 예로는 ‘친구들과 모여 어울리는 편보다는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대중탕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등감 증후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민감성, 소극성, 후퇴성)을 포함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열등감 증후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문항별 신뢰도 점수는 민감성의 신뢰도(Cronbach's α) .52, 소극성의 신뢰도(Cronbach's α) .71, 후퇴성의 신뢰도

(Cronbach's α)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열등감 증후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 척도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Morales와 Crick(1998)이 개발한 척도를 우리나라의 실상에 맞추어 타당화한 배라영, 최지영(2018)의 관계적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3문항),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4문항),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3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소문을 퍼트린 적이 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 나의 방식대로 따를 때까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행동에 대한 분노반응이라 할 수 있는 반응적 공격성의 문항의 예로는 ‘내가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초대받지 못하면, 나도 앞으로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제외시킬 것이다.’ 등이 있다. 애정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문항의 예로는 ‘나는 애인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애인과 헤어지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관계적 공격성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주도적, 반응적, 애정적)을 포함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문항별 신뢰도 점수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Cronbach's α) .71, 애정적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Cronbach's α) .55,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Cronbach's α)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의도귀인 척도

의도귀인 척도는 Crick(1995)의 가설적 상황 도구(A hypothetical-situation instrument)를 김은경(2008)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을 강영호(2016)가 대학생에 맞게 재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의도귀인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10개의 상황에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의도귀인문항과 행위자가 악의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적대적 의도귀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의 질문문항이 있다. 의도귀인 척도는 행위자의 행동이 우연(예: 그 친구는 우연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난 것이다)이거나 적대적이지 않다(예: 그 친구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0점, 의도적(예: 그 친구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만난 것이다)이거나 적대적(예: 그 친구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이었다고 판단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행위자의 행동을 의도적이거나 적대적으로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문항별 신뢰도 점수는 의도적 귀인의 신뢰도(Cronbach's α) .84, 적대적 귀인의 신

뢰도(Cronbach's α)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의도귀인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열등감, 관계적 공격성, 의도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인 열등감, 관계적 공격성, 의도귀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열등감, 관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다섯째, 의도귀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절차를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검증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열등감($t = -.593, p$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검증

(N = 330)

변인	Group	n (%)	M	SD	t(p)
열등감	남	120(36.4)	2.58	.365	-.593(.554)
	여	210(63.6)	2.61	.385	
관계적 공격성	남	120(36.4)	2.16	.758	.139(.890)
	여	210(63.6)	2.15	.746	
의도귀인	남	120(36.4)	1.28	.217	-1.596(.111)
	여	210(63.6)	1.32	.230	

= .554), 관계적 공격성($t = .139$, $p = .890$), 의도귀인($t = -1.596$, $p = .111$)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열등감, 관계적 공격성, 의도귀인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열등감의 하위요인인 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주도적($r = .235$, $p < .01$), 애정적($r = .219$, $p < .01$), 반응적($r = .286$, $p < .01$)과 의도귀인의 하위영역인 의도적($r = .208$, $p < .01$), 적대적($r = .184$, $p < .01$)과 소극성은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영역인 반응적($r = .180$, $p < .01$)과 후퇴성은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영역인 주도적($r = .142$, $p < .01$), 애정적($r = .196$, $p < .01$)과 의도귀인의 하위영역인 적대적($r = .138$,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열등감이 많

표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민감성	소극성	후퇴성	주도적	애정적	반응적	의도적	적대적
민감성	1							
열등감	소극성	.237**	1					
	후퇴성	.183**	.462**	1				
	주도적	.235**	.036	.142**	1			
관계적 공격성	애정적	.219**	.090	.196**	.673**	1		
	반응적	.286**	.180**	.044	.647**	.628**	1	
	의도적	.208**	.069	.081	.261**	.216**	.329**	1
의도귀인	적대적	.184**	.066	.138*	.401**	.358**	.404**	.635**
								1

* $p < .05$, ** $p < .01$

을수록 관계적 공격성과 의도귀인을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영역인 주도적은 의도귀인의 하위영역인 의도적($r = .261, p < .01$), 적대적($r = .401, p < .01$)과 애정적은 의도적($r = .216, p < .01$), 적대적($r = .358, p < .01$)과 반응적은 의도적($r = .329, p < .01$), 적대적($r = .404,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의도귀인을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반영하는지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평가설이 쉽게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Bollen & Long, 1993). 표 3을 보면 RMSEA의 적합도 지수는 보통으로 나왔으나, 전체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NFI = .915, TLI = .889, CFI = .933, RMSEA = .099). 일반적인 RMSEA의 적합도 수용지수는 .05이하이나 경우에 따라 .10까지 수용하기도 하고(Bollen & Long, 1993), .06 이하는 좋음, .08이하는 양호, .10이하는 보통의 적합도로 보고 있다(문수백,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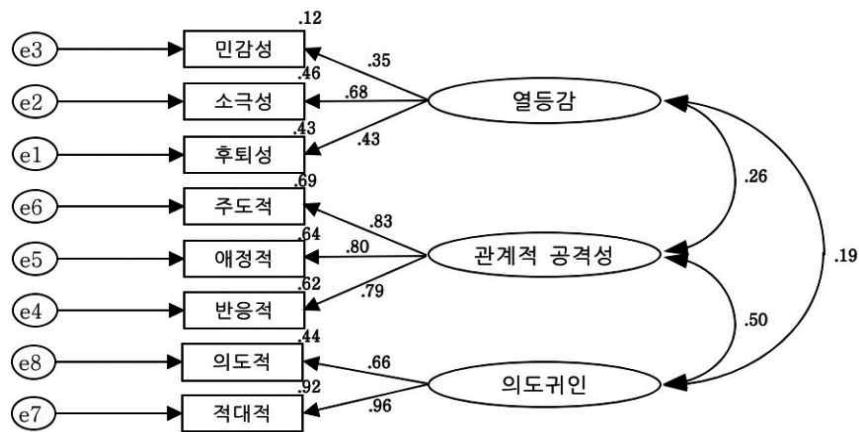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적합도	χ^2	df	NFI	TLI	CFI	RMSEA (LO90 ~ HI90)
측정모형	71.929	17	.915	.889	.933	.099 (.076 ~ .123)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경로	<i>B</i>	β	<i>S.E</i>	<i>t</i>	<i>p</i>
열등감 → 후퇴성	1.000	.657			
열등감 → 소극성	.867	.680	.181	4.778	***
열등감 → 민감성	.423	.349	.096	4.413	***
관계적 공격성 → 반응적	1.000	.787			
관계적 공격성 → 애정적	1.144	.802	.081	14.203	***
관계적 공격성 → 주도적	1.217	.829	.084	14.486	***
의도귀인 → 적대적	1.000	.957			
의도귀인 → 의도적	.841	.664	.116	7.256	***

*** $p < .001$

표 4에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을 제시하였다. 계수를 1로 고정시킨 측정변인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인의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1$), 표준화 회귀계수(β)값이 열등감 → 민감성(.349)을 제외한 모든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민감성 요인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측정모형 내의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검증하기로 하였다.

4. 매개효과 검증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변수 간 총 3개의 경로를 정하였으며, 그림 3과 같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동일하였다. 따라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열등감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도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의도귀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열등감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직접효과($\beta = .171, p < .05$)와 의도귀인을 매개변인으로 한 간접효과($\beta = .089, p < .05$), 총 효과($\beta = .259,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이 부분매개하며, 열등감이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의도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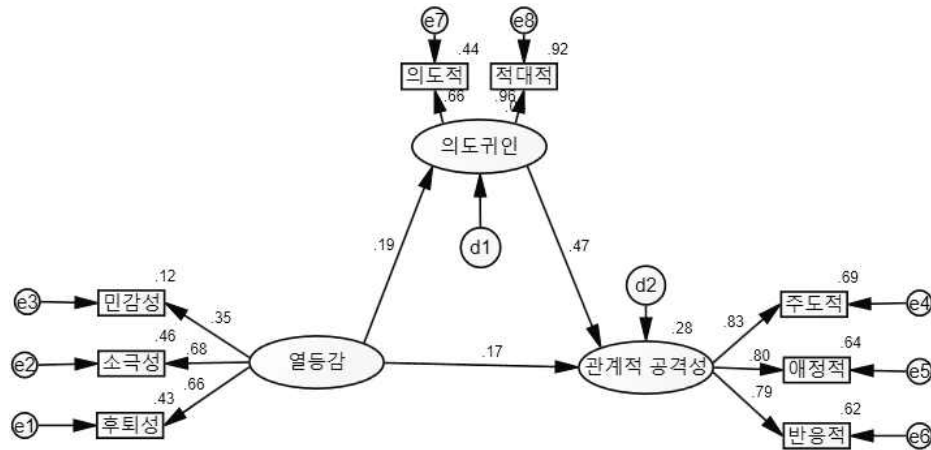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i>B</i>	β	<i>SE</i>	<i>t</i>	<i>p</i>
열등감 → 의도귀인	.089	.190	.037	2.420	*
의도귀인 → 관계적 공격성	1.958	.469	.278	7.054	***
열등감 → 관계적 공격성	.335	.171	.142	2.366	*

* $p < .05$, *** $p < .001$

표 6.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열등감 → 의도귀인	.190*		.190*
의도귀인 → 관계적 공격성	.469***		.469***
열등감 → 관계적 공격성	.171*	.089*	.259*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등감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열등감과 의도귀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인 열등감, 관계적 공격성, 의도귀인은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열등감이 더 높으며, 남녀 간 열등감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는 선행연구와는 결과가 상이하나, 대학생이 느끼는 열등감이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구자영, 2018)는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된다.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타나는데, 과거에 비해 남녀 간의 역할구분이 모호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에서 열등감에 대한 남녀의 경험에 대하여 더욱 구체화 시켜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열등감과 의도귀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열등감이 의도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열등감이 높을수록 내적인 원인으로 귀인하고 타인과 비교하여 열등감이 더 높아진다는 정선양(2002)의 연구와 부정적인 경험을 내부로 귀인 하는 경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열등감을 증가시킨다는 고성희(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고성희(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정서 상태는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 변화가 가능하며, 조작된 정서상태에 따라 대학생의 열등감은 변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귀인성향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부정적으로 추론하고 의도적, 적대적으로 귀인 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상담을 통한 긍정적 정서 상태로의 조정과 함께 자신의 인지적 오류를 재구조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시기의 학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는 대학교에서의 자율적인 학습방식으로 인

한 학업적 실패경험은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학습방법의 어려움과 올바르지 못한 학습습관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학생의 평소 학습습관을 살펴보고 올바른 학습습관을 지향하여 학업적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취감과 만족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또래에게 지지받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집단상담 및 또래지지를 통한 학교적응훈련 및 교육을 통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의도귀인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적대적 의도를 가진 개인이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실행한다는 강영호(2016)와 조서경(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응적 인지정서 조절전략 중 긍정적 재평가 전략이 중재효과를 가지고 있다(강영호, 2016). 또한 대학생은 성인기 사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확산적인 사고 및 성숙한 사고가 가능하므로 적대적으로 의도귀인을 하게 되더라도 대안적인 자극과 반응이 있다면 공격성을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김가혜,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타인의 행위를 의도적, 적대적으로 해석하여 공격성을 나타내는 대학생에게는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귀인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담을 통하여 자동적 사고의 오류를 찾아내는 사고기록지를 기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귀인 상태를 확인하고 교정해줄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귀인성향이 비합리적이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타인이 보이는 애매한 행동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점차적으로 공격성을 낮추게 하여 관계개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열등감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열등감과 공격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Adler(1964)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열등감이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홍혜미(2016)의 연구결과나 청소년은 또래집단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정은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열등감은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이 타인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인 심리로써, 자책감 및 분노를 유발시키며, 그러한 분노를 다양한 공격성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성인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내기보다는 타인이 잘 느끼지 못하는 은밀한 공격성인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배라영, 2017). 이와 같이 분노감과 타인에 대한 적대감 등이 공격성으로 자주 표출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사회성이 결여가 되기도 한다. 또한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등의 억눌린 분노감은 당사자로 하여금 병리적인 문제를 가져올 경향이 있거나, 행동에 있어서 주도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등의 후퇴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하여 보다 적응적으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현재의 행복경험을 찾아보게 하고 그러한 경험과 관련된 감정을 느껴보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장·단점을 찾아서 강화하고, 보완하는 등의 상담기법을 통하여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나 위축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낙오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적응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등감을 가진 대학생은 해석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인지적 편향으로 인한 분노가 상대방에 대한 보복으로 연결되며 관계적 공격성과 같은 공격성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상담장면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학생의 문제를 행동 자체로만 보고 판단하여 개입하기보다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현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담자의 민감성이 요구되며, 불안과 분노표출 같은 감정만 다루는 것이 아닌 인지적인 접근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지역과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하여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 중 열등감 증후 척도는 임기홍(2000)이 개발하여 정수희(2002)가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개발당시와 현재와의 시간적 차이가 크고, 열등감 증후 척도의 하위요인의 신뢰도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온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도구가 현재 대학생에게 맞는 측정도구인지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수가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고, 측정방식이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반응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응답자가 부정적인 항목에 대하여 응답할 시 사회의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했거나, 응답이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어 측정에 대한 결과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부정적 항목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호 (2016). 대학생의 의도귀인이 주도적 및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 정서 조절 전략의 중재효과.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인설, 정계숙 (2008). 만 3세 유아의 놀이에 나타난 관계적공격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1-50.
- 고성희 (2011). 정서상태와 귀인소재 조작에 따른 대학생의 열등감 변화.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영 (2018). 한국대학생의 열등감, 관계적공격성, 대인관계문제, 인스타그램 중독경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인, 조수연 (2013). 청소년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41-62.
- 김가혜 (2017). 청소년의 적대적 의도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실행기능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균, 장석진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791-810.
- 김진영 (2010).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통제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25-746.
- 김현준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역기능과 열등감과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우빈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사회불

- 안의 매개효과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백 (2009).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실제. 서울: 학지사.
-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방은경 (2015). 고등학생의 열등감과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라영 (2017). 정서적 학대, 친구관계 문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라영, 최지영 (2018).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55-79.
- 심은신 (2011).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미 (2015). 청소년의 병리적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적대적 의도귀인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보미 (2017).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교대상에 따른 열등감의 매개효과.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지, 권해수 (2014). 대학생의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교과교육연구, 35(2), 45-59.
-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임기홍 (2000). 고등학교 학생들의 열등감과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승렬 (1996). 아동 공격성의 귀인과정 연구. 덕성여대논문집, 27, 433-452.
- 장은영, 한덕웅 (2004).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자기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27-153.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선양 (2002).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의 열등감과 귀인성향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희 (2002). 대학생들의 열등감 극복을 위한 개인심리학적 집단상담의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3). 인터넷 채팅중독 청소년의 공격성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대인문제 해결능력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심 (2014).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대 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서경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중학

- 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적대적 의도귀인의 매개효과와 공격성에 대한 또래 규범적 신념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 배라영 (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1-200.
- 홍초롱 (2013). 병리적 자기애의 웅대성·취약성에 따른 자존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미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열등감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ler, A. (1964). *Problems of neurosis: a book of case histories*. New York: Harper & Row.
- Bollen, K. A., & Long, J. S.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 (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 1134-1142.
- Dodge, K. A., & Coie, J.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 it and Social Psychology*, 55, 985-966.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 Hubbard, J. A. (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e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72(5), 1426-1438.
- Kashdan, T. B. & Weeks, J. W. (2010). Social anxiety, positive experiences, and positive events. In S. G. Hofmann & P. M. Di Bartolo (Eds.), *Social anxiety: clinical, developmental, and social perspectives*, (pp. 447-469). San Diego, CA, US: Elsevier Academic Press.
- Merrell, K. W., Buchanan, R., & Tran, O. K. (2006).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school settings. *Psychology in the Schools*, 43(3), 345-360.
- Moore, T. M, Stuart, G. L., McNulty, J. K., Addis, M. E., Cordova, J. V., & Temple, J. R. (2010). Domains of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 clinical sample of violent men. *Psychology of Violence*, 1, 68-75.

Morales, J. R., & Crick, N. R. (1998).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Schultz, D., & Schultz, S. E. (1998). *Theories of personality*(6th Ed.). Monterey, Calif: Brooks/Cole Pub.

1 차원고접수 : 2019. 07. 24.

수정원고접수 : 2019. 09. 03.

최종게재결정 : 2019. 09. 18.

Mediating Effects of Intention Attribution in Relation to Inferiority Feelings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Lim, Hyemin

Dept. of Counseling, Hannam University

Choi, Jiyoung

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intention attribution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riority feelings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intention attribution was se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riority feelings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verification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onduct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0 students enrolled in six universit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Chungcheongnam-do in Korea. Questionnaire surveys using the inferiority symptom scale, relational aggression scale, and intention attribution scale were utilized in this study. The analysis method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a correlation analysi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bootstrapp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s among inferiority feelings, relational aggression, and intention attribu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intention attributed to inferiority feelings and relational aggression, intention attribution was found to be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riority feelings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other words, inferiority feelings had a direct effect on relational aggression, while having an indirect effect through intention attribu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higher levels of inferiority feelings in university students are linked to a stronger tendency to feel intention or hostility toward others' behavior, which again leads to relational aggres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empirical research results pertaining to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through educational intervention in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including inferiority feelings and intention attribution by means of counseling for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Inferiority feelings, Relational aggression, Intention attribution